

“외국인, 전남서 10년 이상 노동하면 영주권 줘야”

김영록 전남지사 신년 인터뷰 ... 지방소멸 전국가적 문제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문턱 낮추고 외국인들 받아들여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 소멸이 미래 국가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을 제고, 강제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 등은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 이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방 소멸을 막으면서 농어촌, 중소기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광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특별한 해

택을 주고, 지방도 수도권에 버거는 장소로 만드는 데 국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인구를 다시 늘리려면 우선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여 적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해야 하지만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 김 지사는 “인구, 자본 등 이미 모든 것을 흡수하며, 권력을 다진 수도권에 쉽사리 이를 내줄 리 만무하며,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 또 출산을 제고 역시 장기적인 과제

이를 통해 현재의 소멸 위기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렵다고 김 지사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외국인 이민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지방 인구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까지 동시에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고,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일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지방 소멸을 단순히 거주 인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방을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수도권과 경

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지사는 “이미 지방 소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진정한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방시대,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2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총망라해 강

력히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 여·야 정치권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정책과 법률로는 심각한 지방 소멸, 국가불균형 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뛰어넘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전남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선 7기부터 꾸준히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책사업 우선 배정,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등의 실시와 함께 진정한 재정분권,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물을 물 쓰듯 하면 3월부터 ‘1일 1샤워’도 못한다”

광주시, 역대급 가뭄 극복 위해 보성강·장흥댐 물 빌리고
영산강 덕홍보 물 끌어 쓰기로 절수운동 시민 적극 동참 호소

광주시민들이 지금처럼 ‘물을 물 쓰듯’ 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오는 3월부터 ‘1일 1샤워’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역대급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보성강·장흥댐 등의 물을 빌려 쓰고, 영산강(덕홍보) 물까지 끌어쓰기로 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주춤했던 시민의 물 사용량이 다시 늘면서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하루가 다르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은 12월 첫째주 29.42%, 둘째주 28.26%, 셋째주 27.18%, 넷째주 26.40%를 기록

했으며, 기록적인 폭설에도 4일 기준 저수율은 24.95%까지 내려갔다. 또 다른 상수원인 주암댐도 28%대까지 하향 돌파한 상태다. 반면 ‘20% 절감’을 목표로 한 광주시민의 수도 물 절감률은 12월 넷째주 8.9%로 정점을 찍은 뒤, 12월 마지막 주엔 6.4%로 푹 떨어졌다. 오는 3월로 예고된 제한급수를 막기 위해선 매일 광주시민의 하루 평균 수도물 사용량(49만톤) 중 20%인 10만톤 정도를 줄여야 하지만, 겨우 3만~5만톤 안팎을 절감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금처럼 시민들이 물 절약에 외면한다면 오는 3월 제한급수에 이어 5월 중순경 동북댐이 고갈될 수 있다고 보고, 물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와 수자원공사는 일단 제한급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보성강댐과 장흥댐 물 빌려쓰기, 영산강 덕홍보 물 끌어쓰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수력발전용 목적으로 지어진 보성강댐은 발전소 기능을 일시 중단하고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초당 2t씩 하루 평균 17만t 안팎의 물을 주암댐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103만 6800t의 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주암댐의 경우 전남 일부 지역 상수원과 농업용수 공급 가능까지 말고 있는 만큼 보성강댐 용수 중 광주시민에게 제공되는 몫은 하루 2만t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2006년 완공한 장흥댐의 도움도 받고 있다. 전남 9개 시·군의 상수원인 장흥댐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루 1500t 안팎의 물을 목표로 보내고 있다. 대신 목표로 보내던 주암댐 물은 광주 식수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영산강 덕홍보 물을 취수하기 위



상수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광주시가 생활용수로 활용하려는 영산강 ‘덕홍보’의 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한 관로 설치 공사도 시작했다. 현재 덕홍보 주변에서 동구 선교마을까지 관로(16.23km)가 설치돼 있는데, 용연정수장까지 관로 2km를 신설하면 영산강 물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사업비로 35억원이 투입되며 5월 초께 완공돼 하루 최대 5만t의 물을 공급하게 된다. 하지만 광주시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시민협조가 없는 한 제한급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게 광주시의 가

장 큰 고민이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보성강댐과 영산강의 물 자원 확보 등으로 제한급수 시점을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전체 수도물의 70%(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물 절약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제한급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1

광주일보 창간 71주년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 종이신문의 페이지 넘김을 형상화 시킨 디자인으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듯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았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에너지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피부 시험 결과(49세 여성)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 ~ 2021년 05월 05일